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5, 요한계시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요한계시록 35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신약 수업입니다.

응원하지 마세요.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콜로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1/4시까지 당신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단지 두세 구절에 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마무리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저는 5월에 제안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제가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관한 5월 학기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이 하는 일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몇 가지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발표는 이 수업의 월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네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없을 것이지만 나의 이전 조교 중 한 명이 그 시간 동안 시험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당신은 결승전까지 떠나게 됩니다.

네. 결승전은 몇시인가요? 좋은 질문.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알았죠? 무엇? 수요일이에요. 기말고사 주간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일정을 확인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고 몇 분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희를 지탱하시고 힘과 활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단계와 최종 프로젝트를 앞두고 마무리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 계시록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능하는지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쪽. 저는 요한계시록이 주로 소아시아나 현대 터키에 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특별히 박해가 아니었지만 일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로마제국에 더 많이 순응하는 것이었다. 즉,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많은 도시에 스며든 황제 숭배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들 중 다수는 황제를 기리기 위해 건축된 사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압력은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의 박해와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가 참수하는 등의 공식적인 보복을 황제 자신이 승인했다고 반드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때때로.

그러나 대부분의 박해와 고통은 산발적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호의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로마에 대한 명예와 충성, 감사를 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방 당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면서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와 로마 제국이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충성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숭배와 충성, 전적인 충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과연 왕좌에 앉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는가, 아니면 카이사르였는가? 그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따라서 계시가 주로 하는 일은 계시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예언적으로 폭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한 번, 사람들이 1세기를 바라볼 때 경험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카이사르가 왕좌에 앉아 있고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며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모든 종류의 혜택과 부를 제공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봅니다. 하지만 존이 원하는 것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를 종말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공개된다는 의미이며, 역사 뒤의 커튼을 뒤로 젖혀 사람들이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하는 일은 이 책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처럼 자비롭고 놀라운 존재가 아니라 대신 로마의 허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로마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인하는 존재임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로마를 기독교인과 이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먹는 피에 굶주린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하려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이미지와 언어를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도 당시의 도시와 제국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허식하고 교만하며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축적된 부 등. 그리고 이제 요한은 1세기에든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단, 이번에는 역사적 바벨론이나 이집트 또는 다른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로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참된 본질을 폭로하여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요한이 실제로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디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끝날지. 종말론이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1세기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로마에 저항하고 제국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그 중 하나에 가장 가까운 현대 비유가 정치 만화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치 만화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언급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나 문자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기술한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만화의 요점은 어딘가에 가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터무니없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라는 미국 대륙의 실제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종의 논평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여러분에게 짧은 문단을 주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줄 수도 있었지만 정치 만화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이 반응하고 상황을 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이 로마 제국과 1세기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긴 정치 만화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정치 만화처럼 그래픽적이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과장된 상징을 사용합니다. 비록 그것이 1세기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실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종종 구약성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입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세 세트의 일곱 재앙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당신에게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 각각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더해 보면, 특히 나팔과 대접의 공통점은 나팔과 대접에서 물이 피로 변하고, 몸에 종기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덮이고 때로는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릇에 도달할 때면 온 땅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있습니다. 또 그 이상한 메뚜기들은 인간과 같은 머리와 암컷과 같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 이빨과 전갈 같은 꼬리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분명히 메뚜기입니다. 개구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 속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나요? 이런 말을 전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출애굽. 물이 피로 변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흑암이 땅을 덮고 메뚜기 재앙과 물에서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 출애굽의 재앙을 기억하라. 그럼 존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판단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마치 요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악한 제국을 심판하셨으니 로마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공격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 악한 제국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며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스스로를 높이는 제국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때와 같이 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재앙들이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물리적 사건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재앙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둘의 조합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러나 이번에도 John은 사물이 어떻게 보일지 정확히 알려주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재앙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날에 심판하셨던 것처럼 로마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는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일하셨고 구약성서에서 악한 제국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분은 또 다른 악한 제국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다.

다시 말하지만, 재앙은 출애굽을 기반으로 하거나 모델로 삼았으며, 요점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숫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귀하의 노트에서 몇 개의 섹션을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노트에 일련의 숫자를 쫓고, 그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3년 반이라는 숫자, 666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10, 숫자 4, 숫자 7. 이 모든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의미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 숫자 모두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숫자의 주요 중요성은 수학적 가치가 아니라 상징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질문은 요한이 왜 일곱 가지 재앙을 받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일곱 인장과 일곱 나팔과 일곱 황소가 있습니다. 왜 숫자가 7인가요? 계산기를 들고 앉아 있으면 일곱 가지 재앙을 정확히 셀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왜 숫자 7을 사용했을까요? 지구는 7일 만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모델로 삼은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이나 완전함을 의미하며, 창조의 7일에 반영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7일부터 시작하여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전함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재앙이나 일곱 인에 관해 읽을 때 요점은 서로 뒤따르는 일곱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곱이라는 점은 완성 또는 완전함, 심판의 완전한 수 또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12라는 숫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4, 12 곱하기 12와 같이 12 또는 그 배수를 볼 때마다 12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666. 저는 항상... Soul Fest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뉴햄프셔의 Soul Fest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고든 주변에서 광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네소타에 살았을 때 Spirit Fest라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독교 밴드 예술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에 작은 꼬리표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줄에서 태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태그의 마지막 세 숫자는 666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계속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것을 벗을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질문은 안 하셨을 텐데, 앞 사람은 665점, 뒤 사람은 667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었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숫자 666을 취하고 그 실제 숫자를 통해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666을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66은 숫자 7, 777의 하나가 빠진 숫자에 해당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몇 년 전에 로마 황제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특히 끔찍한 황제로 알려진 네로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고 John도 그들이 Nero와 그가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을 기억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정신이고 로마 통치의 진정한 색깔입니다.

따라서 666의 요점은 바코드, 신용카드, 자동차 번호판, 전화번호에서 문자 그대로의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단지 우연일 뿐입니다.

그 숫자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반대를 상징합니다. 1세기 독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반대하는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에 인간의 힘을 가식적이고 오만하게 과시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666은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Nero에서 구체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더하거나 계산하여 날짜나 시간, 구체적인 숫자를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상징적 가치가 중요하다. 또 다른 본문은 요한계시록 12-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13장은 용이 곧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은 가서 그를 돕기 위해 두 친구를 불러요. 짐승 두 마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의 주된 임무는 세상을 유혹하여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세기 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용은 요한이 나와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뱀이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용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용이 가서 자기를 돕기 위해 두 떼, 즉 두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에서 온 짐승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두 짐승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짐승을 누구와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당신의 추측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고려하여 John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이고 이 장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러 나와서 스스로 온 땅의 주권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짐승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예배를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누구와 동일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로마제국과 로마황제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John의 독자들이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사람과 동일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시 John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그는 로마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무대를 경험적으로 내다볼 때, 그들은 성장하고 증가하며 누구에게나 평화와 부와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누구에게나 보호를 제공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봅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에 대한 묵시적인 비판을 통해 그들의 실제 모습을 폭로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외관 뒤에 있는 로마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려는 시도의 배후에 있는 용인 사탄을 섬기는 끔찍하고 피에 굶주린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12장과 13장에서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 투쟁은 단지 로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이러한 시도 뒤에는 용인 사탄이 있습니다. 압력이 가중되고 로마와의 관계가 뜨거워짐에 따라 그들은 타협하려는 유혹이나 박해 뒤에 숨은 진정한 힘, 그 뒤에 있는 진정한 힘은 창세기에 나오는 오래된 뱀인 용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고, 그들이 겪고 있는 투쟁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주요 메시지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직면한 일의 진정한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해나 타협의 유혹에 직면할 때, 제가 막을 열고 여러분에게 역사의 배후에서 투쟁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장과 13장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계시록을 위한 로마 황제나 로마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하려는 일입니다. 그들의 갈등의 본질과 로마 제국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John은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창세기를 다시 기억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문제, 곧 인류에 대한 저주를 저주하셨으나 사탄 자신에 대한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사탄에게 너희가 땅의 흙을 먹고 배로 땅을 기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말씀하시되 너희가 여자로 더불어 분쟁하여 상하게 될 것이라 너희와 여자가 다투리라 말씀하시되 너희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곧 뱀이요 사탄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 자손은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씨인 사탄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씨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여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 요한은 1장에서 뱀을 식별합니다... 요한은 12장, 3장, 9장에서 사탄을 뱀으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를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 곧 사탄입니다.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은 다름 아닌 그의 추악한 머리를 다시 들고 있는 뱀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씨앗. 요한계시록에서 괄호 안에 요한계시록이 몇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지 주목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그 후손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와 그 후손으로 묘사되는데, 이 내용은 다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의 일부는 여자가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산의 고통.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가 산고를 겪거나 해산하게 되면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는데,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약속의 일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중 하나가 머리가 부서지거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등장합니다. 미안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로서 첫 소생인 아들을 낳은 분이시며,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보기에 이 모든 언급은 요한이 창세기 3장과 저주에 대한 언급을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뱀에게 당신과 여자가 갈등과 적개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네 씨나 그 후손과 그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어 그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 여자의 후손은 실제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요소들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통치와 싸우면서 직면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갈등입니다. , 당신은 그것에 놀라거나 충격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을 상대하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갈등의 일부일 뿐이며, 이제는 기독교인과 로마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의 갈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것에 대처하도록 돕고, 로마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유지하고,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갈등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염두에 두었고, 지금은 독자들이 로마제국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록하고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인 21장과 22장인데, 여기서 저자는 구약에 흔히 등장하는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매우 자주, 예루살렘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에 비유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그 비유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음녀 바벨론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미지를 다시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 독자라면 바빌론을 무엇과 동일시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은 구약의 역사적 도시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대한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책을 듣거나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 독자라면 바빌론을 무엇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아마도 로마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John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벨론, 애굽 등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로마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책이 기록되고 약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렇지 않다면... 로마가 멸망될 것이고 요한이 그의 독자들이 로마의 어떤 부분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물리적으로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로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오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도시가 있어야 하고, 속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일부가 되지 않으려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책은 신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이야기로 끝난다. 요한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 모든 축복, 그 오만함, 교만, 주권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유혹에 충실히 저항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갈 곳이 있고, 속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 이미지는 사람들 자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요한이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특별히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에는 하나도 여러 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 그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그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John이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건축학적 묘사나 청사진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존은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사람들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을 읽으면 그 도시의 모든 척도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수인 12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비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운명을 매우 육체적인 지상 운명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운명은 육체에서 벗어난 영지주의 유형의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 땅에 착륙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창조 속에서 그들의 존재 속에서 그들의 남은 영원을 살아갑니다. 구름 속에 떠다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창조물 위에서. 흰 가운이나 그런 것들로.

그러나 그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존재 속에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구와 아무리 다를지라도 분명히 여러 면에서는 비슷할 것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에게 미래이고 희생할 가치가 있는 희망입니다.

이 창조물, 이 지구,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모든 결과, 슬픔, 질병, 실망, 고통, 전쟁이 모두 제거되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 현재의 바빌론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으로 떠다니는 것뿐이라면 그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은

매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운명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현재로서는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인류가 죄를 지은 이래로 하나님의 주된 의도는 인류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에덴동산 이미지도 사용합니다. 22장을 읽어보세요. 처음 다섯 구절은 다시 에덴동산을 언급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동산 설명을 반영하는 생명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계시록은 단지 종말과 종말에 관한 것 이상입니다. 대신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어린양을 경배하라는 요청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의 실체를 폭로하고 로마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제국을 폭로하고 저항하라는 요청입니다. 경건하지 않고, 가식적이고, 오만하고, 자신의 주권을 자랑하며, 로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하여 그것이 발견되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에 저항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다른 인간의 사물이나 물건을 경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둘째, 계시록은 또한 인내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좋은.

요한계시록에 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콜로라도의 새로운 창조물을 만나러 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농담이에요. 네.

결승전을 위한 리뷰 세션이 있나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결승전을 위한 리뷰 세션을 얻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당신은 매우, 바라건대, 월요일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험 후에 학습 가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학습 가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경우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주 내내 사무실에 없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전 시험 사본을 기꺼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4번 시험을 치를 때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감사해요.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요한계시록 35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